

# 총파업특보 16호

## 이제 '김장겸 해임' 이다

# 방문진 재편, 적폐 보호막 뚫렸다



드디어 활시위가 당겨졌다. 쏘아올린 화살은 적폐의 심장 김장겸을 향해 빠르게 날아간다. 김장겸의 운명도 이제 끝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6일) 이미 사퇴한 유익선, 김원배 전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회가 9인 체제로 다시 꾸러지면서 지금까지 적폐 경영진의 사수대 역할을 하며 MBC를 극우의 최전방 기지로 전략시켰던 방문진 구체제의 전횡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고영주를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김장겸 사장도 즉각 해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 김장겸 보호막 상실... 즉각 해임 가능

당초 방통위가 검사감독을 통해 직무유기나 개인 비위 등의 책임을 물어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면 방문진이 재편되고, 그 후 김장겸 사장이 해임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급진전되고 있다. 방문진 자체가 재편됨에 따라 김장겸 사장은 더 이상 방문진의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23일 제출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건이 처리되는 것은 물론,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처리도 방문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선 고영주 후 김장겸' 단계 처

리가 아니라 '김장겸 해임'으로 직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적폐세력들과 공모해 MBC를 망가뜨린 주범 김장겸의 비참한 최후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 공영방송 재건, 김장겸 해임이 시발점

지난 9년간 MBC에서는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부당징계와 전보 등 수많은 MBC 구성원들의 인격이 말살되는 사상 초유의 탄압도 서슴지 않고 자행됐다. 그 중심에는 지난 9년간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실세 노릇을 하다 MBC를 권력에 바치고 사장에 오른 김장겸이 있다. 9인 체제를 회복한 방문진은 언론자유 회복과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즉각 김장겸을 해임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 조합원은 공영방송 재건의 첫 시발점인 '김장겸 해임' 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다. 언론적폐 공범자들과 그에 동조한 내부자들을 몰아내는 싸움에도 중단은 없다. 언론 적폐들을 반드시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공영방송의 기틀을 만들 것이다.

# 김장겸 해임, 청산 핵심이자 재건의 시작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공석이었던 방문진 이사에 김경환(48)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53)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선임되면서 비로소 방문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보궐 이사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다. 김경환 교수는 MBC 전문연구위원과 시청자평가원을 거쳤고, 이진순 정책위원은 MBC <PD수첩> 작가로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MBC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새롭게 진영을 꾸린 방문진은 하루빨리 언론적폐와 부역 잔재를 청산하고, 비상사태에 빠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피의자 김장겸의 해임이다. 김장겸은 지난 2011년 이후 MBC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김장겸이 보도 책임자로 군림하던 동안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 명이 현업에서 배제됐다.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에 관련해서도 김장겸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심지어 부당 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피의자다. 단 하루도 공영방송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다.

김장겸 해임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장겸 해임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그 이전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더라도 주주

총회라는 절차가 남긴 하지만,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가진 대주주인 만큼 해임안 통과는 사실상 최종 해임 결정과 다름없다.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불신임안은 다음달 2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서, 김장겸 해임안과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고영주는 이사장직에서 내려와 비상임 이사직만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사회를 편파적으로 이끌고 온갖 불법과 비위를 저질러온 고영주가 이사로 남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방통위는 MBC 경영진과 한 몸인 고영주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백중문과 최기화, 김도인 등 MBC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부역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김장겸과 그 추종자들을 뿌리 뽑는 것,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MBC 재건의 핵심이자 시작이다.

## 한국당, 공당 맞나? MBC 개입 중단하라



어제 아침 8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 앞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5명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채 '꼭두각시'라고 욕박

지르고 '방문진은 우리 것'이란 식의 생떼까지 부렸다. 과거 자신들이 추천했던 이사들이 물러난 만큼 그 빈자리도 자신들이 또 채워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밀었다. 과거 자신들이 MBC를 좌지우지 장악했다는 자복이자 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탐욕까지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의 논리는 방송 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얘기다. 방문진법을 보자. 제6조 1항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만 돼 있다. 4항에선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명시까지 했다. 보궐 이사에 대한 선임을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권이 추천한 자여야 한다는 건 세상 어느 규정에도 없다. 그렇게 한 전례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술 더 떠 한국당은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될 공영방송 문제를 언감생심 정쟁화까지 시도하고 있다. 항의방문 직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더니, 의원총회까지 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추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도 냈다. MBC 사태 해결 과정에 감놔라배놔라 대놓고 개입하는 건 물론,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국회운영까지 파탄시키는 행태는 공당이 맞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도대체 김장겸이 뭐라고 한국당은 국정감사까지 내팽개치고 민심까지 배반하는 것인가.

한국당에 경고한다. MBC 문제에서 손을 떼라. MBC 사태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공영방송 문제를 진보대 보수, 여야의 정쟁으로 논점을 흐리려는 야비한 꾀수를 당장 멈춰라. 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기고 보자는 식의 생떼가 아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9년 공영방송을 이 지경으로 파탄시킨 데 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자중이다.



# 불신임 직면 고영주의 막판 발악



## 고영주 불신임안 제출... 내주 처리 수순

방문진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이 지난 23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선 10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주 정기이사회인 11월2일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방문진도 9인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 만큼 고영주 불신임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이다.

## 방통위 현장점검도 막가파식 거부

불신임에 직면한 고영주 이사장 체제가 막판 발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검사감독 자료도

맹탕으로 제출해놓고, 누락한 자료 확인을 위해 벌이는 현장점검마저도 막아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 5명은 현장점검 첫날 7시간 만에 철수했다. 말로가 선명한 고영주 이사장 체제가 주무관청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까지 막가파식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 "나는 갈릴레이다"... 막말 퍼레이드 막판 작렬

법과 상식의 영역 밖에서 '나홀로 폭주'하는 고영주의 실체는 조합 특취팀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영주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게 하나도 없다. 태블릿 PC는 가짜"라며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부정했다. 방문진 이사장이 된 뒤에도 "국정원 요원을 수차례 만난 적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국정원의 언론장악 사태에 대해선 "국정원으로서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할 수 있다"거나 "MBC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한 방법"이라고 두둔했다. '문제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굽히지 않는 자신을 '갈릴레이'라고 자처한 대목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선 부적절하고 위험한 극우편향 의식이다.

## 고영주에게 남은 3가지 선택

막판 버티기에 나선 고영주에게 이제 남은 선택은 3가지 뿐이다. 빠르면 다음주 새롭게 재편된 방문진 이사회에서 불신임되거나, 그 치욕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그 전에 자진 사퇴하거나, 이도 저도 싫다면 조만간 발표될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해임'되는 것이다. 제발 빠른 선택을 바랄 뿐이다.

## 이 와중에 태국서 세미나 개최 참석?

김장겸 사장 해임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같은 중대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방문진이 한가롭게 태국서 '국제방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부 이사진들이 참석차 4박5일 일정으로 출장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방문진은 다음달 9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에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 3명이 참석차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행사 참석을 놓고 이사진 사이에 실전이 오갈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해당 이사 3명은 '뉘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며 출국 강행 의사를 보였다.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은 물론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유독 구여권 이사들만 출장을 가겠다는 것도 수상하지만 4박5일간의 태국 일정에 관광 일정들도 다수 포함

돼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당초 항공권까지 끊고 동행하기로 했던 고영주 이사장은 이사회 하루 뒤인 지난 20일 항공권 예약을 급히 취소했다. 본인 스스로 '거취를 고민중'이라고 밝혔던 시점이다.

일정표를 살펴봤다. 첫날인 11월 7일은 오후 1시 방콕 공항에 도착, 이후 만찬 외엔 별 일정이 없다. 두 번째 날은 오전에 주태국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고 오후엔 방콕 소재 한류 쇼핑몰을 방문한다. 실제 <국제방송 세미나> 행사는 도착 사흘째인 11월 9일 하루 열린다. <국제방송 세미나>가 끝나고도 이틀 더 태국에 머무른다. 특히 마지막 날 일정은 태국 왕족의 여름 별장인 방콕인 궁전, 아유타야 고적지, 방사이 예술공예센터 방문 등 하루 종일 관광 일정만으로 채워져 있다.

행사 자체도 문제다. 방문진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세미

나를 개최하고 이사진들은 출장을 잤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작년엔 베트남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예산은 매년 1억 원 정도다. 하지만,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의 설립 취지나 고유 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은 있는지,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해외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방송 교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는 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현재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방통위는 당초 사업을 벌인 목적부터 실제 사업 내역과 경비 지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경영평가보고서는 폐기하면 그만인 식이었고, 방통위의 검사감독과 현장점검도 나 몰라라 하던 이들 이사진들이 해외 사업 개최와 외유성 출장만큼은 참으로 열심히 까닭을 MBC본부도 상세히 추적해볼 것이다.

# 세월호 가족 “파업 승리해 진실 밝혀라”



실 규명에 무력했던 무거운 마음에 감히 달지 못했던 노란 리본과 팔찌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달아줬다. ‘시찬 아빠’ 박요섭 씨는 MBC 구성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잊지 말고 오늘부터 노란 리본과 팔찌를 착용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완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며 “그래야 죽도록 미웠던 방송이 죽도록 지지하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내내 숙연했고, 눈시울은 붉어졌다.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과 MBC 노래패 ‘노래 사랑’이 함께 <손을 잡아야해>를 부를 땐, 참회와 다짐의 눈물이 흘렀다.

파업 51일 제인 지난 24일 세월호 가족 21명이 MBC본부 총파업 집회 현장을 찾았다. 세월호 가족이 MBC를 항의 방문한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조합의 간곡한 초청에 응해 파업 격려차 MBC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MBC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3년 내내 세월호 가족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다. 당시 보도국장이던 김장겸 사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강패’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부장 리포트를 통해 잠수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유가족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커녕 그들의 눈물을 방송 화면에서 지우고 오직 청와대 감싸기에 몰두했다.

## “죽도록 미웠던 MBC, 죽도록 지지하는 방송 돼 달라”

MBC를 여러 차례 항의 방문했던 ‘에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래 살고 불일’이라며 지지 발언을 시작했다. 유 위원장은 파업 성공을 통해 하루 빨리 MBC를 정상으로 되돌려주길 당부하면서, “각 언론사끼리 세월호 관련 영상과 인터뷰 등을 공유해 자료를 분석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방송사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사람들이 참사 당시 모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일 뿐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진

## “날날이 기록하고 처절히 성찰하겠다”

김연국 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공영방송 MBC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구해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면서 “당시 우리가 왜 더 저항하고 막지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날날이 기록해 성찰하고, 어떤 권력이 들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공영방송으로 재건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반드시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 MBC본부, 안중필 자유언론상 본상 수상

## 이용마 · 김민식 특별상



빛이 또 하나 늘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가 제 29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본상을 공동 수상한 것이다. 태블릿 PC 보도로 탄핵 정국에 불을 지핀 JTBC 뉴스룸 등 8팀의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지만, MBC본부에 본상을 수여한 건 공정방송 재건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크다.

MBC 본부가 안중필 자유언론상을 받은 건 지난 1993년 공정방송 쟁취 파업 투쟁 이후 두 번째다. 1993년 수상 직후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이 됐듯, 총파업 승리와 공정방송 재건으로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MBC’로 거듭나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안중필 자유언론상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하다 옥중에서 생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안중필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7년 제정된 상이다. MBC본부의 본상 선정 이유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처참하게 일그러진 언론을 되살리기 위해 치열하고 절실하게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민식 PD와 이용마 기자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주최측은 “김 PD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를 했고, 이 기사는 투병중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2017 파업콘서트 7천명 운집

지난 25일 저녁, 서울 시청 광장에서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가 조합원과 시민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MBC 프리덤 2017' 라이브 공연으로 막을 올린 이번 콘서트엔 특히 김미화, 김제동, 김어준, 배철수, DJ DOC 이하늘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거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MBC 총파업을 지지해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바버렛츠, 밴드 혁오, 장기하와 얼굴들, 전인권 밴드 등 유명가수들은 물론 MBC를 차례로 떠났던 박혜진 문지애 김소영 아나운서도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총파업을 응원했다. 출연진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 | “우리는 언론인들이 공적 역할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기를 지나왔다. 어려운 공부를 했으니 이제야말로 언론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더욱 힘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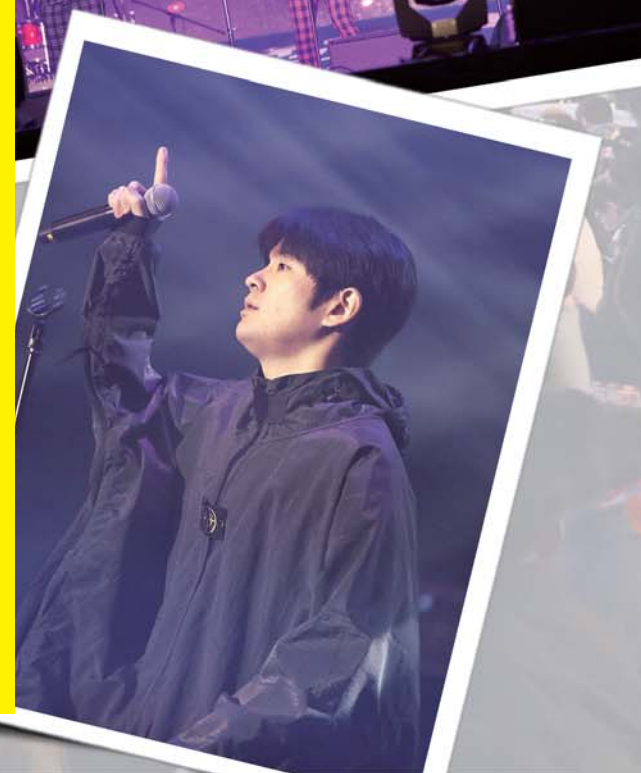
**장기하** | “MBC를 다시 MBC답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으로 안다. 저도 그걸 위해서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려 왔다. 하나도 빠짐없이 목표를 다 이루셨으면 한다. 다시 별일 없이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다.”

**박혜진 아나운서** | “해직 선배를 복직되고, 아나운서 선후배들도 다시 제자리에서 멋지게 방송하는 날이 오길 소원한다. 함께 일했던 우리 선후배들 또한 다시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한다”

**DJ DOC** | “주변에서 우리보고 ‘앙이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게 됐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힘내시기 바란다. 김 to the 장 to the 검은 물러나라!”

**김미화** | “오늘 분위기를 보니 MBC가 살아 있다는 걸 알겠다. MBC가 정상화되면 블랙리스트 관련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오늘 전한 시민들의 쓴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죽비로 여겼으면 한다. 많은 분들이 MBC가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전인권** | “언론이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신나게 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대, 걱정 마시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 ‘깜짝 게스트’ 이용마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주자”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멋진 친구입니다.” 파업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민식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소개에 이어 투병중인 이용마 조합원이 환하게 웃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큐시트에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았던 깜짝 등장이었다. 이용마 조합원이 총파업중인 조합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합원은 “이번 파업 중에 꼭 한 번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동안 지키지 못했다”며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용마 조합원의 무대 발언은 그동안 영상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보다도 훨씬 또렷했다. 먼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강조한 이용마 조합원은 “우리는 지난 9년간 언론이 질문을 못 하게 하는 독재 시절을 겪었고 참다못한 국민이 나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며 지금의 상황을 “도둑을 쫓아낸 것”에 비유했다. 이어 “이제는 도둑들이 훔친 재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라며 “공영방송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이를 위해 “방통위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촉구했다.

복막암 투병중인 이용마 조합원은 이날 치료차 서울에 왔다가 조합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파업콘서트 현장까지 들렀다고 했다. 김재철 경영진에 의해 해직된 지 오늘로 2063일째다.



# 김장겸, 부장 시절부터 사장 행세 지역사 사장들에게 “노조 눈치보나” 질타

2009년 4월 17일.

김장겸은 뉴스시스템에 ‘계열사 데스크 귀중’이라는 공지문을 띄운다. 당시 김장겸은 MBC 보도국에서 지역 계열사의 뉴스를 담당하는 네트워크부장이었다. 서울 MBC 기자들은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가 강제로 하차당하고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은 전 영배 보도국장의 전화 한통으로 누락됐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작동된 시기였다. 서울 MBC 기자들은 4월 9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파행을 거듭했다. 지역 MBC 기자들 역시 이에 호응해 지역 뉴스의 송고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선 MBC 구성원들의 몸부림이 서울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작됐던 것이다.

## 지역사 무시, 오만의 극치

‘곰곰이 생각하다 한 말씀은 드려야겠다 싶어 올립니다’로 네트워크부장 김장겸의 글은 시작됐다. 자못 공손한 흉내를 썼지만, 내용은 지역사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김장겸은 먼저 ‘서울의 보도국 데스크(간부)들은 파업이든 제작거부 때든 전원 리포트를 했다’며 계열사의 보도국 간부들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MBC의) 평기자들부터 간부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송고거부에 참여했고 송고권을 가진 데스크까지 허위사실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당한 정권의 압력과 사측의 행태에는 눈을 감은 채, 공정방송을 위한 지역 MBC 기자들의 결단을 폄하하고 조롱한 것이다. ‘편집 편성권의 독립,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계열사 데스크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조한 현실, 씁쓸합니다’라는 대목에서도 왜곡된 현실 인식과 오만을 또 다시 드러냈다.



## 지역사 사장도 꾸짖는 실세 부장

심지어 ‘일부 계열사 사장은 (노동조합)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며 지역사 사장들까지도 꾸짖었다. 훗날 사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억압했던 장본인이 정작 자신은 일개 부장 시절, 지역사 사장들에게 빈정대면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김장겸은 가히 ‘MBC의 전두환’이라 할 만 했다.

이 짧은 공지문을 통해 김장겸은 지역사 구성원들에게 편파와 오만함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된다. 지역 MBC의 역할을 서울의 ‘뽕뽕’ 정도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갑질’ 의식도 대놓고 드러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의 시절 김장겸은 실세 중 실세로 부상했다. 그런 시절이었다.

## 승승장구하는 김장겸, 추락하는 MBC

김장겸은 2011년 2월 정치부장을 시작으로 2013년 보도국장, 2015년 보도본부장, 2017년 사장까지 2년 간격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김장겸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MBC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김장겸은 정치부장 시절 한미 FTA 반대 집회 보도를 누락하고,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을 축소하는 등 철저한 친정부적 행보를 보였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한 사례는 MBC뉴스 사상 기념비(?)적인 대형 오보로 기록됐다. 보도국장 김장겸은 세월호 가족을 ‘강제’로 지칭하면서 모욕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몰타기로 축소 은폐했다. 보도본부장 김장겸은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무능으로 일관했고 탄핵 정국에서는 난데없이 ‘태극기 부대’를 부각시켰다. 독보적인 ‘편파외길’의 대가는 MBC 사장 자리였다.

## 함량미달 낙하산 투하 ... 지역 MBC 수난

김장겸 사장 선임은 지역 MBC에도 대형 악재였다. 부장 시절부터 지역 MBC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취급했고,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친 인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리품을 나눠 먹듯, 세상 바뀌기 직전 ‘알박기’를 하듯 김현중, 심원택, 허연희 등 함량미달의 낙하산 사장들이 잇달아 투하됐다. 하나같이 지역 구성원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불량 인사들이다.

하루 속히 김장겸을 몰아내고 그 체제의 흔적들을 지우는 것은 공영방송 재건뿐만 아니라 지역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너무나 절실한 과제다. 이번 총과업의 투쟁 목표가 ‘공영방송 회복과 지역낙하산 철폐’로 설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그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